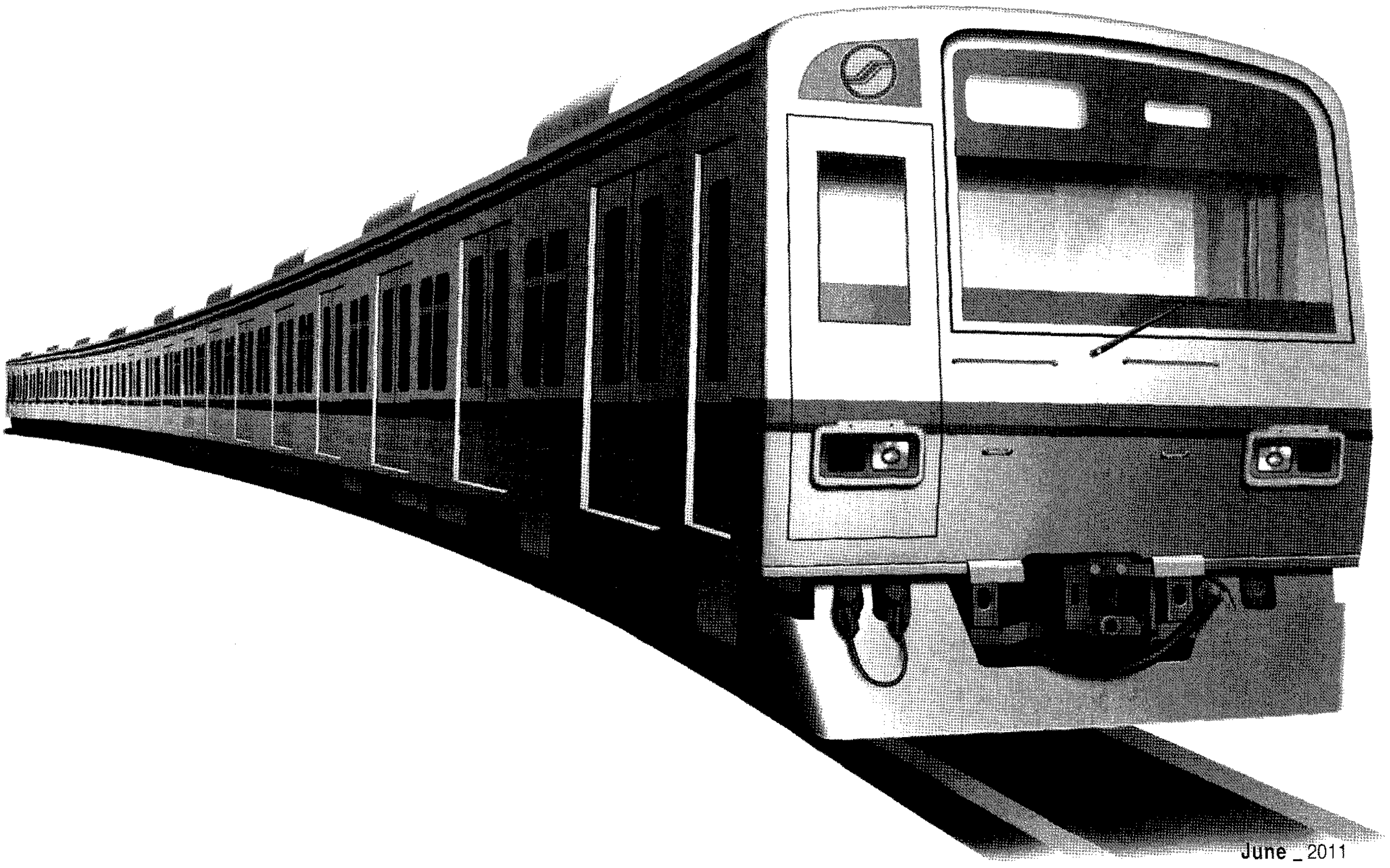
발명 365

지하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은 모방에 의하여 탄생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다. 수송의 역사상 가장 기발한 것으로 평가될 이 지하철도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영국의 찰스 피어슨이다. 피어슨은 두더지의 구멍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런던은 길이 좁아서 늘 복잡한데, 두더지 굴처럼 땅 밑으로도 길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피어슨은 그냥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오랜 시간 연구를 했다. 1843년 그는 연구한 결과를 들고 런던 시의회를 찾아가 세계 최초의 지하철도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10년 뒤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세계 최초로 지하철도가 뚫린 곳은 패딩턴의 패린던과 비숍스를 잇는 선이었다. 1863년 1월 10일이 지하철도의 생일이다.